

특집 II / 2000년대 양돈산업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돼지콜레라·오제스키병 박멸될 듯

대한양돈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양돈」지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이다. 기업양돈장, 전업양돈장 및 소규모 양돈농가로 구성하고 있는 오늘의 양돈산업을 이끌고 선도하는 대한양돈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닥아올 2000년대의 양돈산업중 방역분야는 많은 발전과 기술적 향상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방역분야의 방향을 예상하여 보면, 첫째 전염성이 강하고 피해가 많았던 돼지콜레라도 면역효과가 확실하고 모체이행항체의 간섭현상도 없는 사독오일백신접종으로 그 발병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둘째, 대장균성 설사병은 고도의 다제 내성 병원성 대장균의 출현도 많아서 치료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유전공학을 이용한 subunit백신 접종, 치료시 새로운 항생제 투여, 생균제, 전해질제, 지사제 등 다양한 형태의 치료방법이 개발될 것이다.



예 재 길

(한국바이오텔의학연구소 차장)

셋째, 호흡기 질병은 현재의 불활화 사균백신을 개량한 캡슐 정제백신이나 생균백신이 등장하여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방법으로 새로운 항생제 및 돼지에 효능이 우수한 거담제, 기관지 확장제 등이 개발되어 처방될 것이다.

넷째, 오제스키병은 폭발적인 발생이 없어지고 양돈산업에 위협적인 질병이 되지 못하며 거의 박멸될 것이다. 또 지속적인 혈청검사로써 조기 발견이 가능할 것이며, 새로운

혈청검사법이 도입되면 혈청검사가 보편화 될 것이다.

다섯째, SPF화된 양돈장도 많아 질 것이다. 양돈장의 규모는 500두~3,000두 규모의 기업적 전업화 양돈장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주축을 이루며 가장 강력한 주도세력이 될 것이다.

여섯째, 생산자 단체인 대한양돈협회에서 양돈연구소를 운영하며 돼지 주요 질병의 예방과 진단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양돈인의 단결과 힘을 응집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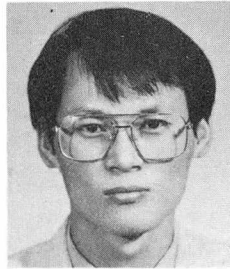
따라서 방향으로 양돈산업이 발전하고, 국제경쟁력이 강한 돼지고기 생산산업으로서 식량자원을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자리를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희망적인 2000년대는 양돈인 모두의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생존 가능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앞으로 10여년 후어나 닥아올 2000년대의 양돈산업을 전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요, 또한 미래는 현재를 밑바탕으로 하여 전개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양돈산업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닥아올 21세기의 양돈산업을 조심스럽게나마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00년대의 양돈산업을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축산물의 국제화 시대” 상황속에서의 양돈산업의 위상이다. '87년말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통상개방압력을 가해오고 있는바, 서비스산업과 농축수산물에 그 주요 대상품목이다. 외국 축산물산업과의 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우리나라 농민들의 수입반대 운동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농축산정책은 '선별적 장려작목'의 설정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식량의 국제화시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듯 그럴듯한 다각영농의 환상에서 깨어나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선택한 작목은 철저히 함으로써 국제식량열차에 동승할 수 있다고 볼 때, 양돈산업은



김태환
(축협 서울공판장)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특히, 수출양돈의 우등생인 대만이나 일본의 수입사료에 의한 “보세가공형 양돈산업”으로 그들의 선진산업구조내에 양돈산업의 위치를 정립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양돈산업을 “식육생산공업”으로 존립시킴으로써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속에서 강력한 수입공세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2000년대 양돈산업은 상당히 규모화 되어야 존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을 대만과 비교해 볼 때, 대만의 경우 전·부업규모인 100두~1,000두 규모에서 전체의 60%를 사육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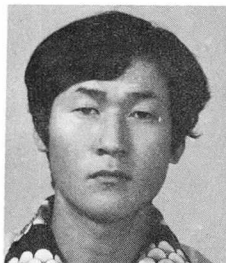
고 영세규모인 99두 이하의 농가가 보유한 숫자는 10%도 안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도 영세규모에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국민소득 규모나 여타 산업구조가 선진국화 해가면 농업도 그에 걸맞도록 영위되어야 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확대와 기술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증가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농가가 아니면 2000년대에는 도태하여 전업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가족의 일부라도 기술과 경영개선에 몰두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양돈산업이 되어야만 2000년대에는 존립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현재 축산물 유통구조는 지극히 취약하여 수급구조나 가격구조의 기능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바, 최근 축산물의 유통방식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체가 기능상으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0년대에는 적응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소비자 측면에서 기호의 다양화와 돈육소비의 증대로 돈육유통에 대한 감시기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나 유통기관이 소비자 지향적인 생산과 판매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양돈산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전공학 이용해 품종개량할 듯

앞으로 11년후면 2000년대가 되어 21세기로 접어든다. 과거 15년전에 뜨물 양돈에 의존하여 키우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배합사료의 등장으로 전업 및 기업형태로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

그간 양돈산업은 국민소득(GNP)이 급속도로 상승함에 따라 육류소비량이 증가되어 불황기간보다 호황기간이 길어 째잡한 소득을 올려 전업화 농장형태로 정착화 되었다. 그러나 현재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유통구조의 불안정으로 중간상인들의 농락에 의해 제가격을 찾지 못하고, 또 환경조건(분뇨취급, 작업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



정 한 식
(〈주〉삼양사 영광농장)

력관리가 어려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가 가중되며,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국제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입자유화·개방화로 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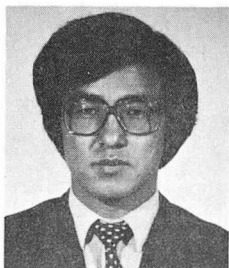
한 경쟁의 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생산원가의 절감을 위하여 경영합리화에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2000년대의 양돈산업이 국제경쟁에서 버틸려면 전문성을 가지고 협동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테면 정책적으로 유통구조의 개선을 강구하여 안정화를 찾아 효율적인 축사구조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인력이 안정되게 하고, 생산기술분야에 첨단과학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 특히, 고능력돈을 수정란이식에 의한 방법으로, 아니면 유전공학으로 품종개량을 하여야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농장의 기계화와 작업농도의 강화 필연적

침체된 양돈경기 덕분에 양돈농가의 시름이 한층 깊어만 간다. 그렇다고 양돈경기의 주기성만 믿고 무턱대고 참고 기다릴 수 만도 없으니 대책수립이 시급한 현실이다.

2000년대의 양돈산업, 멀게만 느껴지던 21세기가 10년 앞으로 다가선 것이다. 미래를 예상하기에는 과거의 자료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한다.



김 성 훈
(선진원종 대리)

표에는 1975년부터 1989년 4월까지 3개 도매시장의 평균 경락가를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에 의하면 양돈경기의 변동은 시간이 지날 수록 주기가 길어지며, 수익율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5주기의 싹점을 언제로 보느냐는 시각의 차이겠지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제4주기가 70여개월, 제5주기가 5~6년을 거친 후에

는 우리나라도 돈육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는 반면 수익율은 크게 낮아 질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농장의 기계화 및 작업농도의 강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작업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업의 질을 단순화 해야 하는데, 한 농장에서 순종, F₁ 및 잡종 모돈을 모두 보유하거나 순종 모돈이라도 백색과 유색 모돈을 동시에 보유할 경우

에는 작업을 단순화 시키기가 어려워진다. 즉,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장의 생산 형태를 전문화 시켜야 한다. 자돈생산농장에서는

F₁이나 하이브리드모돈을 이용하여 자돈만 전문적으로 생산해야 하며, 종돈장에서는 단일 또는 2개 이하의 품종을 보유하고 육종개량에 전념하여야 한다.*

〈표〉 1975년 이후 양돈주기

구분	기간	개월수	평균지육가격	80년기준가격*
제1주기	75. 1~77. 2	26	885.6	2,051.0
2	77. 3~79.11	32	1,206.2	1,837.5
3	79.12~84. 2	51	2,159.2	1,837.1
4	84. 3~89. 4+A	62+A	2,085.8	1,4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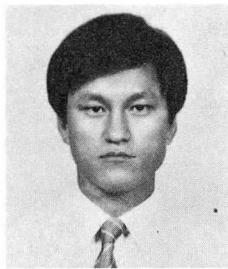
* : '80년 기준가격은 경제기획원 물가지수로 계산

육종산업 및 사료산업의 질적향상 기할 듯

작금의 국내상황은 민주화의 물결로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세계의 상황도 성장세의 지속보다는 불균형·불확실성의 해소를 통한 중·장기 안정성장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는 특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타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양돈업도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와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 중 양돈용 배합사료의 비중이 '86년 28.38%에서 '88년에는 36.9%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향상은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과제이다.

대일 돈육의 수출량도 '86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나, 세계 어느 지



서영재
(영남제분(주))

역에서나 식료품내의 잔류물질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축산관련인 모두는 질적인 향상에 전력을 다해 '87. 7월 현재 일본내 돈육 주요 수출국들 시장점유의 1% 이하의 수준을 더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 식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육가공업도 커다란 변모를 갖출 것으로 생각된다. '87년 현재 육류생산량 중 5% 정도만이 가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체 가공제품 중 돈육의 비중은 매우 커 약 85% 정도이므로 돈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가중되어야 할 것이다(2000년대 육류 가공은 10~15%로 추정).

국민 1인당 돈육소비량도 '88년 육류소비량의 59.4%인 10kg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89년에는 11kg을 예상하고 있으나, 국민경제의 성장과 함께 식생활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추측된다.

2000년대의 양돈산업은 국민의 기호도가 높아가는 가공업의 육성

으로 생산육을 충분히 활용하고 돈육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충분히 펴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하며, 육질개선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육종산업 및 사료산업의 질적인 향상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나 협회 및 단체에서는 양축가에게 적정규모를 사육토록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

며, 정부와 소비자·축산관련자 및 생산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공급과 수요를 적정선에서 맞추므로

서 국제경쟁의 선두주자로 양돈산업의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연도별 GNP에 따른 국민 1인당 육류·돈육소비량과 육가공 제품 추이

	1인당 GNP	1인당 육류소비량	1인당 돈육소비량	육가공제품	돈육가공제품
1970	248	5.2	2.6	1,896M/T	-
1980	1,605	11.3	6.3	5,779	4,913
1986	2,296	14.4	7.7	17,195	13,758
1988	4,040	17.0	10.1	32,659	31,732

2000년대 양돈업을 위한 프로젝트 선행돼야

우리나라의 축산은 일찌기 '축산진흥'의 기치를 내걸고 국가의 주요 육성산업으로 성장하여 왔다.

또한, 농업경제의 주요 소득작목으로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급격한 시장변화 속에서 우리 축산업의 위상(位相)은 어찌하며, 지금의 취약한 체질로 향후 2000년대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과연 어떠한 산업 체질이 적응력을 가질 수 있는가. 첫째, 산업의 구조적 안정이 필요하다. 정책의 입안에서 집행까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 "2000년대의 양돈업을 위한 프로젝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양돈인 모두가 믿고 지탱할 양돈산업의 안정된 지렛대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가격, 유통, 판매 등의 포괄적인 해결방안이 그 안에서 제시될



신 이 섭

(우성사료 판촉부 대리)

것이다. 둘째, 대외 경쟁력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1차산업에 있어 특히, 농업(축산)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비교우위론자들의 구구한 사건(私見)들이 축산발전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먹는(식량) 산업이 농업(축산) 강대국들의 입김에 눌러 차생력을 잃는다면 우리네 국가의 공업선진

국화도 그 이미지를 잃고 만다. 셋째, 양돈산업의 소프트웨어(software)를 시급히 고급화 시켜야 한다.

종축·영양·사양·질병·방역·경영 등의 모든 생산요인은 제각기 하나의 S/W로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정책과 튼튼한 산업체질이라는 하드웨어(hardware)속에서 호환성(互換性)을 갖고 유기적으로 연계, 육성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을 얼른 기억해 낼 수 없음이다.

이제, 양돈업에서 주기(週期)를 이야기하지 말자.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그래프"를 우리 양돈인의 기준으로 삼을 수야 없지 않은가. 한 10년쯤 남은 현실점은 그런대로 2000년대를 준비하기에 결코 모자라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